국내
마감시황

2026.4.15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지정학 우려 완화에 상승 지속

트럼프, 이란과의 2차 회담 개최 임박 시사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되며 성장주 유형 반등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6,091.39pt (+2.07%)	1,152.43pt (+2.72%)	916.60pt (+2.19%)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74.90 원 (+2.2 원)	3.6490% (-0.9bp)	7,005.00pt (0.00%)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9,350 억	-2,362 억	+4,336 억
외국인	+5,431 억	+1,115 억	+5,603 억
기관	-222 억	+1,561 억	-9,914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지정학 우려 완화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안에 이란과의 2차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고 언급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되면서 성장주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이날 KOSPI는 2.07%, KOSDAQ은 2.72% 올랐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31.4조원, KOSDAQ은 약 15.7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에서 5천억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 기계/장비와 건설 업종을 매수했고, 증권과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 수급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기관은 금융과 IT 서비스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전기/가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실적 모멘텀이 이어지며 반도체주가 상승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 스페이스X에 1조원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급 계획을 발표한 OCI홀딩스가 반등했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바이오, 로봇 등 성장주 유형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외 원전, 건설, 전선 관련주 등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일 급등한 증권주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하락했습니다. 보험, 조선, 방산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대한전선(+28.30%), OCI홀딩스(+24.93%), 삼성에피스홀딩스(+12.41%)가 올랐고,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4.39%), DB손해보험(-3.91%), 미래에셋증권(-3.73%)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